

“색·빛·면 다양한 변주로 희망 말하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작가 초청전 ‘우제길의 빛’ 내년 2월 24일까지 신작 중심 30점·6m 대작 선보

“봄부터 전시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빴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했던 빛의 변형에 집중했죠. 여전히 작품은 빛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제길 화백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작가 함께 하는 희망 이야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작가를 소개하는 초청전으로 ‘빛의 작가’ 우제길 전시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황영성 초대전에 이은 두 번째 지역작가전이다.

13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제길 작가의 신작 중심의 전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올 한 해 새로운 창작에 매진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그는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빛’을 주제로 한 추상화 작업을 해왔다.

그의 추상화는 색과 빛 그리고 면이 다양한 변주를 이루면서 나타난 시각적 결과물이다.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기법은 계속 변화되어 모노톤화면에서 색조의 변화가 도입됐고, 이후



‘빛’

다양한 컬러들이 울동감을 이루는 작품들로 변화해 갔다.

형태에 있어서도 화면에 길고 좁은 틀을 주어 빛을 표현하던 것에서 수평적 구조, 점담형의 구조를 거쳐 장방형으로 변화했으며, 큰 색면들이 중

첩됐다. 작은 단위들의 점적적 구조로 변화되는 등 새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작가는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왔다.

2010년 이후 칼라를 입힌 한지와 피지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풀라주해 만들어진 화면은 거대한 무리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그 작은 색띠들이 하나의 단위로는 희미하지만 온전한 빛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작가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신작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0여 점의 신작들과 함께 지난 2004년 제작된 6미터의 대형작품도 출품된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이달의 작가전’을 비롯해 일본·독일·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100여회 개인전을 가졌다.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제1회 광주비엔날레 최고인기작가상을 받았다. 전시는 ACC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연수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감상하는 민화

광운 50주년·예술의전당 30주년·ACC 3주년 문화창조원서 김세종민화컬렉션 ‘판타지아 조선’

문자도, 책거리, 화조, 산수, 삼국지, 구운몽, 까치호랑이 등 민화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전당은 14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김세종 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기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다.

이번 순회전시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김세종 컬렉터가 문자도, 책거리, 화조, 산수, 삼국지, 구운몽, 까치호랑이 등 민화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작품 가운데 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민화는 대중이 좋아했던 그림으로 누구든 창작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실험적 작품세계를 보여주며,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욕망과 현실의 각박함을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예술 장르다.

김세종민화컬렉션-판타지아 조선은 조선시대 봉건질서의 해체와 전환현상을 정확하게 담아 그들의 조형언어로 표현한 민화를 민주주의 역사가 보존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이게 됨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입장권은 2,000~5,000원으로 전시 기간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



화조곡석도

조원 대표소에서 현장 발권된다.

/이연수 기자

음·복합 콘텐츠 전시·공연 선보인다

15일 예술의 거리 ‘뉴폼스’서 ‘교감’ 주제 성과발표전

음·복합 콘텐츠 오픈 스튜디오 ‘뉴폼스’ 성과발표전이 오는 15일 오후 5시 동구 예술의 거리 뉴폼스에서 진행된다.

‘교감(Communion)’을 주제로 조가영 안무가, 허동혁 작곡가, 이병순 사진작가, 이호준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지난 8월 문 연 ‘뉴폼스’는 미디어 아트 분야 창작자 및 제작자를 육성하고, 음·복합 예술 창작에 특화된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뉴폼스에서는 융복합 예술·뉴미디어 아트 기반 창작자 3명과 1명의 작가를 모집해 콘텐츠 창작, 교류, 교육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주민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과 청소년들에

게 음·복합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사진촬영과 영상을 만들고, 라이트닝 의상을 입고 안무를 해 보기도 하며, 다양한 음악을 직접 작곡해 보는 등 융복합 예술체험을 실현하고 있다.

조가영 안무가가 안무한 ‘별이 된 어린 왕자’는 명작 ‘어린 왕자’를 재해석해 컨템포러리 발레와 화려한 미디어아트, 폴댄스, 서라운드 음악으로 풀어내어 공연 작품이다.

허동혁 작곡가의 앨범 ‘Spectrum’은 전자음악에서부터 클래식한 사운드까지 폭넓은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황신혜밴드, MDS등과 함께한 다양한 밴드 활동, JK김동욱 등과 작품을 함께한 가요활동, 클럽 DJ 활동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온 작가는 이번 뉴

폼스 융복합 레지던스 활동을 통해 더욱 깊이있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관한 탐구와 전자음악의 영향을 받은 클래식한 사운드에 대한 실험을 했다. 미디어아트와 발레와의 접목을 통한 융복합 음악적 성과물을 총 17트랙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CD에 담았다.

이병순 사진작가는 갯벌과 그물, 양식장을 ‘터전’이라는 주제로 사진에 담아냈다. 드론을 이용해 바다생물의 터전인 갯벌과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양식장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호준 작가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때론 가장 비현실적인 모호한 기준의 경계, 자각몽 (Lucid dream)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 느낄 수 있다고 느끼는 자각몽 속에서 여러 꿈 세계를 유영하며 경험하는 주인공의 느낌에 초점을 맞춰 음·복합 공연 ‘초월-꿈 너머 꿈’ 시놉시스를 소설화했다.

‘뉴폼스’ 성과발표전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오는 27일에는 뉴폼스 레지던스상주 작가들의 공동 프로젝트로



조가영 리플렛 표지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초월 II’를 공연한다.

/이연수 기자

연말 따뜻한 마음 국악한마당

고제 가야금병창 보존회 설립 기념 14일 전통문화관

(사)고제(古制)가야금병창 보존회(이사장 성진희) 설립 기념 ‘연말 따뜻한 마음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국악인 성진희 이사장은 지난 7월 보존회를 설립했다.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김장조 선생과 더불어 가야금산조의 양대 산맥이었던 고제가야금병창은 화순에서 한숙구·정남옥·정달영으로 이어져 왔다. 현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대한민국 예능 보유자인 강정열 선생까지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전주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강정열 선생과 제자인 성 이사장이 뜻

모아 전통문화 계승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 이사장과 제자들은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제 가야금병창을 비롯해 판소리, 무용, 설장구, 민요 등의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현대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연말을 맞아 남도 특유의 멋이 깃든 흥겹고 애절한 전통문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객과 함께 노래하며 호흡하는 시간과 청소년들의 합창 무대도 준비됐다.

공연은 14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2038-1058. /이보람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다스코이주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세라코이주** Ceramic Eco-Business Road Safety Architecture Co., Ltd.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설치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사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R&D	
세 라 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R&D	

※ 접수문의: 담당자 06)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